

# 국토 64%가 산악인데 산악기상관측소 부족

## 전국 123곳중 전남 17·광주 0 "무등산 특화 정보 제공해야"

국토의 64%가 산악지형인 한국의 산악기상관측망이 120여곳에 불과해 기상변화가 심한 산악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탐방객이 360만명에 이르는 무등산 국립공원의 기상기후·정보 기반의 예보 모델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조선대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로 풀어나가는 무등산 가치 창출'을 주제로 열린 다학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공유됐다. 기상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등산 기후변화 대응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 64% 산악...산악기상관측망 123개 불과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원명수 연구관에 따르면 전국 산악기상관측망은 지난 6월 현재 123개소에 불과하다. 호남권에서는 전남 17개소, 전북 11개소 등 모두 28개소의 산악기상관측망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광주에는 현재 산악기상관측망이 없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모두 30개소를 추가 구축하는 등 내년까지 모두 200개소로 늘릴 계획이지

만, 미국 1900개, 일본 1000개, 캐나다 900개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기상청의 관측망(681개소)은 대부분 주거지나 평지 위주의 기상을 다루고 있다.

산악기상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 많다. 산악기상관측망이 구축되면 변화가 심한 산악지역의 기상을 실시간으로 관측·삼림재해예측을 높일 수 있다. 또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 기온변화로 인한 병해충도 예방할 수 있다.

◇"무등산 특화 기상정보 제공해야" =조선대 박근영 교수는 이날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 후 등산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악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산행안전 지원에 필요한 산악 기상·기후 응용정보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악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산악 기후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악활동에 영향을 주는 기온, 바람, 강수, 안개 등 자료를 분석해 무등산의 대표 4개 탐방로의 방향 등에 따라 향상된 기상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등산코스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공하면 등산객들의 안전도 향상과 함께 국립공원이나 지자체가 장비나 인력에 투입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민기자 kki@



외국 청소년들 광주서 태권도 유학 오스트리아·노르웨이·독일·스페인 등 10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수련생들이 19일 조선대 체육관에서 품새·발차기 등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열리는 '2016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에 참가, 품새와 겨루기 교육을 받고 요가, 품물 등 한국 문화도 체험한다.

## 조선대 28일 이사회...총장 재공모 결정

### 후보 단독 응모 후속절차 논의

조선대는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출과 관련, 재공모를 비롯한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현욱 법인 이사장은 19일 "한 후보만(총장 초빙) 공모에 응모했기 때문에(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공모 여부 등을 이

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는 지난 18일 총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한 후보만 응모에 참여하면서 향후 일정을 놓고 검토를 해왔다.

애초 조선대 총장 출마가 거론되던 예정자들은 10명이지만 9명의 후보들이 이사회 총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대 총장 선출 규정은 '심사위원회는 이의 신청 절차

가 종료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총장후보자 2인을 무순으로 이사회에 추천한다'는 규정 외에 단독 후보 응모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한편, 단독으로 응모한 A 후보는 이날 학교 게시판에 다른 총장 입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고를 통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총장 후보 선의의 경쟁 기회 부여 청원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 상무금요시장 노점상에 과태료

### 서구청, 40명에 3900만원 부과

광주시 서구청이 상무금요시장 노점상인 40여명에게 도로 부당점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노점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구는 치평동 성당 인도 등에서 불법 노점 상행위를 한 42명의 상인에게 19일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 1일 구청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노점 상인들에게 사전 예고 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검토 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상인 1인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50만원까지 도로 점용 면적에 따라 산출됐으며, 과태료의 총액은 3900만원이다.

앞서 서구는 올 초부터 6개월여간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인도, 치평동 성당 주변 인도에서 노점 상행위를 해온 상인들에게 주민 통행 불편과 도심 미관 훼손,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고 장사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일제 정비 방침을 세우고 노점상인들에게 알렸다.

노점 상인들로서 구청의 정비 방침은 이해한다면서도 상무지구가 제대로 개발되기 전인 20여년 전부터 농산물 등 각종 상품을 팔면서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온 점을 고려해 단속에 신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불편과 도심 미관 훼손 지적에 대해서도 "금요일 단 하루 열리는데 앞으로 주변 정리를 잘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

었다.

서구는 그러나 노점 정비 방침에 동의하고 구청이 대안으로 제시한 인근 공원으로 이주한 노점상인들이 수십명에 달하는데다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만큼 더는 물러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점상인들을 감안해 6개월여간 단속을 유예하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노점상인 일부는 막무가내로 비좁은 인도에서의 장사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로도 불법 노점 상행위가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무금요시장 노점상인회 측은 "상인들 입장을 모아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남광주 '밤기차夜시장' 참여 상인 모집

광주시 동구가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남광주 '밤기차야(夜)시장' 참여 상인을 모집한다.

상인은 야시장 개장 중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퓨전음식, 아시아 및 세계음식, 기타 창작개발 등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게 된다. 선정비율은 남광주시장 특화음식과 향토음식 60%, 아시아 등 세계음식 20%, 기타 20%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모집규모는 이동매대 30팀과 푸드트럭 10대 내외다.문의 062-608-270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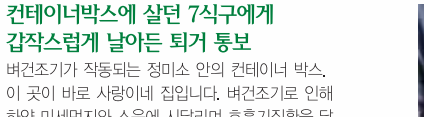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벽진조기가 침범되는 청미소 안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벽진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생방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내던 집이었습니다.



###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선생의 빔, 빔을 깔으며,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민낯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의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 외부에 임시로 판매를 뜻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여덟 가족은 살기 위해, 외삼촌네 집 마당에 임시 판매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매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추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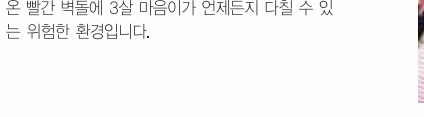
### 동생이 너무나 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시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속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시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오늘의 날씨**

해출 05:33    해진 19:45    달출 19:48    달진 05:40

**따뜻한 햇볕**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22/31	보성	구름많음	21/29
목포	구름많음	23/29	순천	구름많음	23/30
여수	구름많음	23/27	영광	구름많음	21/30
나주	구름많음	21/31	진도	구름많음	23/29
완주	구름많음	22/28	진주	구름많음	22/31
구례	구름많음	21/30	군산	구름많음	22/30
강진	구름많음	22/28	남원	구름많음	20/31
해남	구름많음	23/29	후산도	구름많음	21/25
장성	구름많음	20/30			

◇ 바다 날씨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1.0~2.0
	면바다	동~남동	1.0~2.5	남동~남	1.5~3.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매우높음
-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	☁	☁	☁	☀	☀	☀
23/30	23/29	24/29	23/29	24/28	24/30	23/2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